

## “국민건강 위해 연구하는 자세로 일합니다”

### 강원도 제 4 지구 의보조합 산하 고한읍 건강검사의 현장

健協 강원지부는 강원 제4지구 의보조합 산하의 탄광지역 사업장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88년부터 시작하여 그동안 피보험자 건강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던 이 건강검사의 과정을 소개하기 위해, 검진팀과 함께 정선군 고한읍 탄광지역과 정선군 인계면 영세민 건강검사의 현장을 찾아가 봤다.



### 아직도 겨울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고한

겨울 문턱을 벗어나, 이제 어느 곳이나 봄의 향내가 물씬 풍겨나고 있다.

그러나 목적지인 고한에 가까워 질 수록 여전히 겨울인 듯한 착각에 빠진다. 높은 산에는 하얀 눈이 가득 쌓였고, 응달에도 여전히 잔설이 남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피부에 소름이 돋을 만큼 쌀쌀하게 느껴지는 기온 역시 그런 기분을 더욱 느끼게 한다.

해발 680m에 위치한 고한은, 여름에도 서늘함을 느끼게 하며,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누구나 건강에 조심해야 할 곳이다.

산사이에 둘러싸여 약간은 고립감을 주기도 하는 이 고한에서 많은 광부들이 우리의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

### 피보험자 건강관리 위해 올해는 더 많은 노력을

『2년전만 해도 탄광지대는 전성기였지요. 그래서 조합운영도 원활했었구요. 하지만 작년부터 탄의 수요가 감소하고, 폐광을 하는 곳이 많았던 탓인지 생각보다 고전을 해왔습니다. 다행히 이 지역은 타지역에 비해 평균소득이 높고 비교적 안정적인 지역이라 올해부터 내년사이에 많은 여건이 호전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고한 지역 탄광촌 주민 건강관리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강원 제4지구 의보조합 연규한(延圭漢) 대표이사의 첫마디이다.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가가 자신들의  
연구과제라고  
4 지구 의보  
실무자들은 입을  
모은다.

### 피보험자 건강관리가 조합의 궁극적 목표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피보험자의 건강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조합에 대한 인식도 좋아질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의보조합 운영의 궁극적 목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라며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피력한다.

그의 이러한 확신은 현장근로자와 피부양자 건강 검사를 실현 시키기에 이르러 '88년부터 검사에 착수도록 하였다.

### '88년, 1만명 간염검사와 1천여명 자궁암 검사

『'88년에는 1만여명을 대상으로 간염검사를 실시했고, 1천여명의 여자를 대상으로 자궁암검사를 실시해 45명의 유소견자를 발견, 치료토록 했습니다. 작년에는 여건상 '88년의 실적에는 미치지 못했지요. 올해는 더 많은 사람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모든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라고 힘주어 말하는 그의

모습 속에는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가득 차 있었다. '88년 취임 전, 정선군 부군수직을 지내기도 했던 연구한 대표 이사는 공직에 있을 때 우리 역사의 산 증인이라 할 수 있는 정선아리랑 가사를 수집·정리하여 책자를 펴내기도 했으며, 향토 사학위원으로 지내기도 한 재원.

그는 또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에도 지역발전을 위해 국공장을 설립하고 “흙진주 내고향”노래를 창작하는 등 향토문화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자랑스런 한국인이다.

### 200여 사업장에서 5만8천여 피보험자와 가족관리

강원 제4지구 의보조합은 현재 정선, 영월, 평창 등의 3개군을 관할하고 있다.

『이곳의 인구는 약 30만명 정도입니다만, 워낙 이동이 심한 편이라 숫자 변동은 있을겁니다. 저희 조합은 이 지역의 200여 사업장에서 피보험자 1만4천명, 피부양자 4만4천명 정도를 대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평균 부양율이 높은 편이지요. 하지만 생활수준은 도시 못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4지구 의보조합 최문석 대리의 조합현황에 대한 설명이다.

**정선군 일대  
사업장 근로자의  
의식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의보카드  
만큼은 잃어버리지  
않을 만큼 높은  
편이라고.**

건강관리에 대한 주민의식도 높은 편이다

그는 또, 이곳 피보험자들의 의료보험과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은 대단합니다. 다른 서류는 잃어버려도 의료보험카드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을 정도니까요.』라며 그들의 그러한 인식이 조합일을 하는데는 힘이 된다고 덧붙인다.

현재 보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대리는 '85년에 강원 4지구 의보조합에 입사해 피보험자 건강관리에 주력해온 숨은 일꾼이다.

더 많은 혜택을 위한 연구가 우리의 과제

그는 『여러 해 동안 이곳에서 일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보험자  
건강관리의  
정착이며, 그것이  
조직 운영의 최고의  
목표라고 강원  
4 지구 의보조합  
연구한 대표이사는  
말한다

기생충검사부터 모든 건강관리를 위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려는 자세로 일하고 있지만 의료보험 적용의 한정된 범위 안에서 건강검진사업을 실시해야 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하면 피보험자의 건강을 위해 더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 까 하는 것이 저희들의 연구과제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앞으로의 전망과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 주민의 호응도 의외로 좋은 곳

그들의 이러한 노력 덕분일까. 건강검사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이 의외로 높은 곳이 바로 이 지역이었다.

지난해 건강검사에서 발견된 유소견자의 2차검사를 위해 찾아가던 정선군 인계면에서는 검진팀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1년에 한번 이렇게 건강검사를 하는 것 말고는, 사실 병원 한번 가기도 어려운 실정이지요. 더구나 이번 2차검사는 예정에 없던 지원사업이라 정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라며 면에 근무하는 보건소원 김순애씨가 주민들의 인사를 대신해 주어 검진팀의 피로함을 일시에 풀어주었다.

취재를 마치고 떠나면서 바라본 하늘은 마지막 남은 태양빛으로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탄광지역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좋은 일들이 많기를 빌어보는 저녁이었다.

(글·마희연)